신조(creed)

[신조 5 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A. 하나님의 형상

1. 지적인 형상 - “지식”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의 지식이 풍성했음을 알 수 있다 (창 2:19-20).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

2. 도덕적인 형상 - “의와 거룩하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된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25-32).

3. 사명적 형상 -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모르면 허무와 방황 속에 살게 되지만, 사명을 발견하면 힘이 솟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생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4. 관계적 형상 -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된 인격체이시지만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한 근원에서 났으니 다른 사람과도 동포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 살아 가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 15:5-6).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의미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